



▣ 경운초지 조성 방법

- 초지조성 대상지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이유
초지조성 대상지는 잡관목지든 임지든 간에 선점식생이 있고,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새로 파종된 목초의 유식물이 기존식생과 경합 없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. 또한 기계작업에 방해나 효율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.
- 초지 조성지의 장애물 제거 작업 순서
 - － 벌목 : 벌채신고 후 목책림, 방풍림, 대피림을 남기고 벌목한다.
 - － 화입 : 잔가지나 잡관목을 제거한다.
 - － 발근 : 작업에 방해가 되는 바위, 자갈, 나무뿌리, 잡관목, 숙근잡초 등이다.
 - － 정지 : 비옥도가 높은 표토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평탄작업 후 지표로 사용한다.

▣ 파종상 준비 및 구비조건의 충족 필요

- 배수가 잘되고 상하층 토양의 수분 함량이 적당하여야 한다.
- 선점식생과 잡초가 없으며 균일해야 한다.
- 종자가 파종되는 바로 밑의 토양은 단단해야 한다.
- 부드럽고 입상이며 너무 곱거나 가루 모양이어서는 안 된다.
- 파종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목초의 정착률이 떨어진다.

▣ 파종 적기를 결정하는 요인

- 토양수분이 부족한 봄 가뭃에는 불리하다.
- 서늘한 기후에서 생육이 왕성한 목초의 특성상 봄부터 여름철에는 잡초와의 경합에서 불리하다.
- 파종 후 월동에 필요한 충분한 생육(5℃ 되는 날로부터 60~80일 전)이 필요하며 기타 다른 농작업과의 경합을 고려하여 파종을 결정한다.
- 파종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나 강우가 없을 때는 반드시 진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

■ 목초의 파종 시기

- 일반지역 : 8월 말~9월 초(가을장마 직전)
- 고 냉 지 : 봄~초가을 또는 서릿발이 있을 때 파종한다.

■ 파종 후 갈퀴질과 진압은 필수

- 목초의 정착률 향상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수분이다. 갈퀴질을 통해 목초 종자를 지면에 밀착시켜주고, 진압을 통해 모세관 현상에 의해 토양 중의 수분이 종자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면 목초의 정착률은 현저히 향상된다.
- 파종 시기가 늦어졌을 경우나 강우가 없을 때는 반드시 진압하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